

# 임실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 N양념산업 34억원·N과수 융복합 43억원 등

임실군(군수 심 민)은 고추, 복숭아, 사과, 배, 영경귀, 독활, 참꽃 등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가공·유통·체험으로 확장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17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역전략식품을 통한 향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촌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생산기반을 확충함을 물론, 새로운 농촌활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4개 사업에 173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임실N양념산업 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4억원의 사업비로 관내농가가 직접 생산한 고추와 절임 배추, 각종 채소를 사용하여 안전한 김치를 생산하고 김장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양념가공·김치체험장을 중

점시설로 설치하였으며 6월부터 초등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김치문화 체험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진행된 "임실 아사아사 김장페스티벌"은 2,000여명이 참여하여 주부들의 김장고민을 해결하고 고품질 재료로 김치명인이 함께한 배추김치로 큰 호응을 받았다.

임실N과수 융복합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3억원을 투자하여 복숭아, 사과, 배 등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사업장을 10월까지 건립을 완료 할 계획이며, 농림부의 학교과 일간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신선편의 가공과일을 생산하고 전북도내에 유일한 가공설비를 완벽하게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의 집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는 참꽃을 활용해 고부가 가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순창군과

순창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6억원을 투자하는 "임실·순창·임실·순창·임실·순창"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 및 제조 인프라, 체험 및 홍보관 등 복합화한 "임실참꽃 기능성식품 지원센터" 건립하고, 건강기능성식품 개별인증과 장류적용 상품개발 등 농·산·학·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토건강식품 명품화사업은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주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영경귀와 독활을 활용해 건강기능성식품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심 민 군수는 "2015년부터 시작한 농촌융복합산업화 관련 사업들이 임실N양념 가공·김치체험장, 임실N과수 가공사업장 건립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운영과 농가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혜택을 군민들이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물놀이터 조성

### 백두대간 스테이 힐링 워터파크 조성 첫 삽

남원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백

두대간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다. 17일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5억원(도3, 시2)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백두



대간 생태교육장 전사관(남원시 운봉읍 운봉로 151) 일원에 조형물놀이대, 조형분수, 유아놀장 등 물놀이 시설과 벤치, 피크러 등 휴게시설을 설치해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다.

물놀이터는 전사관 입장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여름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에코루터,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는 아이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유아숲 체험원, 울창한 소나무 숲 속에서 하루밤을 즐길 수 있는 힐링캠핑장,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있는 생물테마 전시·체험시설 등을 조성하여 이용객들에게 더욱 풍성한 체험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063-620-575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 풍산 초등학교 군청 방문 '지역에 대해 바로 알아오'

순창군 풍산면 4학년 학생 6명이 순창군청을 방문해 순창군청에서 하는 일과 순창의 역사 및 유래 등 지역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지역에 놀이기구랑 공원

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동네 경로당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기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등 아이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실과장과 계장들은 아이들의

궁금 사항을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아이들이 군청에서 하는 일과 지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또 군회의를 방문해 지역 민주주의에 대해 배워보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양원 기자



17일 순창중앙초등학교, 순창군, 순창경찰서, 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으로 중앙초 신호등 설치 기념 점등식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 '특목'

### 순창군 17일 중앙초등학교 후문 교통신호등 점등식

순창군이 어린이는 물론 군민들의 교통안전 지킴이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다.

군은 17일 순창중앙초등학교, 순창군, 순창경찰서, 교육지원청과 공동주관으로 중앙초 신호등 설치 기념 점등식 및 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중앙초등학교 후문에 교통신호등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된 행사다.

군은 지난 4월 사업을 착공하여 5월 13일에 완료했으며, 중앙초등학교 후문은 학생들이 등하교시 주로 사용하는 도로임과 동시에 중앙로와 연결되어 있어 읍내에서 전주와 남원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이다. 군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교통사고 위험 대책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중앙초 학생들과 교육지원청, 경찰서, 모범운전자연합회, 학부모단체, 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신호등 개통기념 리본 커팅 및 점등식 후 홍보판을 들고 아이들과 함께 교통안전캠페인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순창중앙초등학교 교장(교장 장명순)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설치에 협력해준 모든분께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교통사고 없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매아리

### 황숙주 순창군수 예비후보 개소식

황숙주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가 17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3선 고지를 향한 대장정에 공식 돌입했다.

순창을 '작은영화관' 앞 선거사무소는 이른 아침부터 지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황숙주 군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줬다. 또한 이날 개소식에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순창·남원·임실지역위원장이 참석해 황예비후보에 지지를 호소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순창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순창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황숙주 후보는 탁월한 소통행정 전문가이다. 감사원을 비롯하여 오랫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져온 역량을 지난 7년간의 군정에서도 열심히 펼쳐 보였다. 황후보의 순창을 향한 꿈이 결실을 맺길 바라며, 황숙주 후보와 순창군민 여러분의 앞길에 빛나는 성취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숙주 순창군수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그동안 순창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한 결과 2018년 추경예산 규모가 3,750억에 달할 만큼 살림규모가 커지고 발표미생물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사업들의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했다"면서 "중단 없는 순창발전과 순창의 100년 미래를 위해서는 순창을 가장 잘 알고 능력 있는 저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확대

남원시는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이며 (단, 결혼한 만 20세 이상~ 만 24세인 자는 상기조건에 부합할 경우 특례지원 가능)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 경영기구의 여성농업인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생카드를 발급받아 1인당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지원하여 연말까지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헤센터, 목욕탕, 미장원, 찜질방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커피전문점, 도내 농협 하나마트 등 사용 가맹점이 작년 대비 11개 업종이 늘어나 총 36개 업종, 31,205개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 남원시보건소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보건소장 최태성)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10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국 보건소 대상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구시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체계구축 및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대회로 남원시가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1,350만원을 수여받았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존의 개별사업에서 연계성 없이 추진되

던 13개 보건사업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특히 이번 성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시작된 이래로 2014년 우수기관, 2015년, 2016년, 2017년 최우수기관에 이은 5년 연속 성과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

남원시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유는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행태개선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삶의 터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보건의료사각지대를 해소시켰다. /남원=유영철 기자



###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